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야구가 돌아왔다.' 시범경기가 치러졌고 3월 23일 개막이다. 10개 구단은 자신의 전력과 환경 그리고 최근 흐름 등을 바탕으로 올 시즌 목표를 설정한다. 우승을 겨냥하는 팀도 있고 포스트시즌 진출의 5강을 목표로 하는 팀도 있다.

겨우내 국내외에서 진행된 스프링 캠프는 팀 목표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구단들의 노력이다. 대한민국에 10명밖에 없는 프로야구 감독의 운명은 성적에 달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팀의 목표는 크게 우승(Win Now)이나, 정비와 준비(Rebuilding) 나로 나뉜다.

작년 통합 우승팀 LG는 차명석 단장의 '우승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차에 우승을 달성했다. 그 동안 포스트 시즌 진출은 물론 순위도 계속 상승했고 팀의 예상 승수와 우승 경쟁자가 어느 팀일지도 짐작했다고 한다.

스프링 캠프에서 10개 구단 감독들은 어떤 목표를 말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 이를 바탕으로 올 시즌 우승을 놓고 다투는 팀은 어디인지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팀은 어디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팀 리더십의 목표 설정과 그 결과를 비교해보자는 말이다.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다졌던 두 팀의 리더십은 역시 우승을 목표로 한다. 우승팀은 '왕조건설의 시작'을 다짐한다. 첫 번째 우승은 전력이지만 두 번째 우승은 철학"이라며 팀의 방향성과 컬러를 좀 더 분명하게 가져가자는 다짐이다.

우승 경쟁권의 팀으로 평가받았던 포스트 시즌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팀은 리더십을 전적 교체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독 교체와 프랜차이즈 스타의 갑작스러운 이적으로 뒤숭숭했던 팀의 새 리더십은 '리모델링'을 다짐한다.

팀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가장 잘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한 팀이 하나 더 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지만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새 리더십은 '내부 지도자의 감독 승격'이 가장 현실적 선택이라는 판단을 한다. '세 대교체의 감독'은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며 우승 전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포스트시즌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의 리더십은 올 시즌이 '한국시리즈 우승' 타이밍이라고 선언한다. 작년 우승을 놓고 한국시리즈에서 경쟁했던 팀의 감독조차 '만만치 않은 감독'이라고 인정하는 팀이라 보여지는 전력 이외의 강점이 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초보 감독이었지만 작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의 성과를 낸 팀 리더십은 '작년에 이어 포스트 시즌 이어가기'를 목표로 한다. 당장 우승 경쟁은 아니지만 팀이 계속 나아가는 중이라는 뜻이다. 곧 우승 전력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승 청부사로 카리스마 감독을 영입한 팀은 '새로운 팀의 가을야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공격적이며 새로워진 팀 야구를 지향'한다. 우승 경험이 많은 감독은 '선수들이 파닥파닥 뛰는 이기는 야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선수들의 기를 올리는 데 둔다.

지난해 가을야구에 탈락한 팀의 리더십은 '홈구장에서 가을야구'를 목표로 한다. 당장 우승 도전은 어려워니 차근차근 전력 향상을 노리겠다는 말이다. 투타의 기동이 모두 빠져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는 팀의 리더십이 '도전정신과 완주'를 목표로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다.

만년 하위 팀의 리더십은 '가을야구 넘새라도 말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 메이저리거의 복귀는 팀의 '5강 도전의 포부'로 이어진다. 선수한 명이 가져오는 급변인데 사람이 팀과 리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충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자 "운동권 특권 부패 종북 세력의 합체"라고 맞받는다. "사면 음란 친일 극우공천"이라고 하자 "충성심과 방탄력 기준의 공천"이라고 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상대의 악마화와 반사이익의 정치다.

여야는 우리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실행계획을 제시할까? 프로야구 감독도 계약기간은 있지만 성적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된다. 우리가 4월 10일 뽑는 사람들은 임기 4년이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社說

대통령, 전남 숙원 국립의대 설립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립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국립 의대 설립 요청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설립을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언론과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 전남으로서는 굉장이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다"며 "어느 대학이 할 건가부터 정하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임기중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설립 약속으로 남은 임기 3년 안에 전남권에 국립 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권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목표대가 1990년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이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었다. 노인 인구비율 전국 1위(26.3%), 의사 수가 없는 섬이 164개나 되는 등 명분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는 전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베풀길 대결을 벌이는 국면에서 정부가 전남의 숙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의대 증원의 80%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는 조치다.

이제 전남도가 당초 계획대로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동으로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설치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통령이 공동 유치를 하려면 명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면 목포대와 순천대를 설득해 어느 한 곳에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은 만큼 이번 기회에 30년 숙원을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주 공공체육시설 짓기만 하면 뭐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광주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나 개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광산구 빛그린산단 인근에 '빛그린 체육관', 같은 해 11월 북구 신안동에 '무등 국민체육관'과 광산구 평동에 '평동 체육관'을 완공했다. 이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빛그린산단 근로자 복지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빛그린 체육관은 준공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개관조차 하지 못했다.

수영장 수심이 1m45cm로 깊게 설계돼 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앞서 위탁운영을 맡은 광주도시공사가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빛그린 체육관의 하루 이용객은 15명에 그칠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76억원과 100억원이 투입된 무등 국민체육관, 평동 체육관도 수영장만 개장했을 뿐 다목적 체육관은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평동 체육관의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해 보수가 시급하고 수영장 탈의실 역시 비좁게 설계돼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립한 스포츠 인프라다. 무엇보다 공공체육시설은 민선 7기부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납득하기 힘든 문제로 개관이 미뤄지는 건 예산낭비나 다르다.

따라서 광주시는 공공체육시설이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수영장의 기본시설인 탈의실 부족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감사로 바로잡는 한편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삶에 있어서 고통은 꼭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구 충족의 결과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통은 육체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괴로워함을 의미하지만 자명한 사실은 이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러 고통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뒤로 하고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 어려움을 직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톨릭교회는 지난 2월 14일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사순시기에 들어갔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되는 죄의 회개와 정화의 시기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씻고 원래의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청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원래의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돌아와 참된 행복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죄의식 없는 고통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의 신자들하고 지금 남미의 어느 국가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왜냐하면 죄가 깨끗이 씻겨졌으니 이제 새롭게 살아가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열어 더 가까워지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더러운 물이 담긴 유리컵에 계속 깨끗한 물을 더해주면 그 더러워진 물이 조금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 넣으면 점점 깨끗하게 변해간다.

죄는 여러 내적인 경로를 통해 저지르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통해 죄를 짓기도 한다.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언제나 죄의 결과는 자신의 선택으로 벌어진다. 그것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서 고해성사는 삶의 여정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불완전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상태에서 교만함을 선택해 무너져내린 삶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기도, 단식, 회생으로 회개(悔改)를 살아낸다.

사순시기에 기도하고 단식하고 희생하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신자들, 이에 동력을 얻어 생긴 힘으로 기꺼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움직인다. 이 힘의 원천은 십자가상의 예수에게 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희생이 끝내 부활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어떤 인문학자는 삶에서의 기쁨, 인생에서의 행복과도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 '죄의식 없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안주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익숙한 것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살아가도록 지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누리고 있고 소유한 것이 자신을 존재하게 했으니 그것에 안주하고 지키려고 안달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다. 익숙한 것에서 탈출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벗어남을 실현해야 진정한 자유를 찾고 인간의 참된 본질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삶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해의 선교를 선택하는 사제들이 있다.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두 명의 사제가 남미와 같은 가난한 나라와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선교사제로 파견되었다. 한국의 편안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이의 발걸음에 큰 의미가 있다. 충분히 예상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죄의식 없는 고통'을 선택하는 이들은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으로 희망을 되찾고 행복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여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잇는 십자가의 역설이다.

기고



김정희
전남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오늘의 정치인들의 처지가 흡사 키에르케고르의 '어릿광대와 불리는 마을'의 비유만큼 가슴에 내려앉아 서늘한 느낌마저 든다. 무대에서 어릿광대 노릇을 하고 난 광대가 분장을 지우고 그럴싸한 웃음으로 바꾸어 입는다고 해서 본연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오늘날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을 돌이켜 본다면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기필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와 자율화의 물결에 휩싸여 새우로 바뀌어 입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걸쳐 입었던 자신의 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벗어던져 버리고 갑자기 새복장으로 잘 차려입었다고 하루아침에 인격을 두루 갖춘 인격자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일인가를 금방 깨닫게 되며 이내 더 혹독한 실망을 안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과 같은 현상 속에서 진지한 자세를 취하는 정

여의도 정치권에 바라는 것

치인이라던 정치의 제반 문제가 정치인들의 의식구조에서 생긴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가 일방적인 제도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듯이 정치인들의 의식변화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인들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제도만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나, 제도개혁을 외면하고 의식변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위장될 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의식변화와 제도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는 필수 조건이다. 그 뿐이라! 나 자신의 처지와 남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편과 저편의 양상은 서로 다름만큼 비슷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곧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추구하려면 먼저 정치인들의 성실하고 겸허한 자성이 요청된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인간 본질의 속성인 책임은 인격이며 윤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 버린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한 번쯤은 자신에게 "나는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한다. 세상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잠잠하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

도 가능한지를 새삼 물어야 한다.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은 조직의 외적 원칙인 '법'에 의해 행동하지 않고 윤리의 외적 원칙인 '사랑'에 의해 표현된다. 자율은 강요도, 밀어부치는 것도, 선동도, 설득도, 타협도 결코 아니다. 자율은 도덕적 주체의 선택이며 결단이다.

그러나던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여의도에 얼마나 있을까? 선택과 결단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비록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 탓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격자이며 의회를 이끌어 갈 능력자가 아닌가. 이러한 인격자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이 보장될 것이며 권위주의나 관료주의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인격자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함과 동시에 다른 이와 '함께'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대응력을 갖는 자이며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만이 이해관계를 떠나 세상의 혼란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있는 권위를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야 할 일' 사이에 상반된 이해가 있음은 실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기로 하겠다. 시대의 부름과 가능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난날의 맹점을 찾아내어 고쳐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짊어져야 할 과제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경솔하게 속단을 내려서도 안됨은 물론 사고를 막 다른 골목으로 전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주 오래 전이지만 정치가 인간에게 행복과 태평성대를 가져다 준 시대가 있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가 그러했고, 동양에서는 요순 시대를 꼽을 수 있겠다.

권력과 돈은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금언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권력은 나누지 않으면 자연히 집중되고 사유화되면서 독재로 치닫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가나 무리들이 파국을 맞은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사천과 막천

권력이 개인이나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국가와 공영된 시대가 바로 그리스 민주정과 중국 요순 시대이다. 사천의 '사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조차 최고의 성군으로 떠받들어지는 요 임금과 순 임금의 시대를 태평성대로 일컫는 이유는 '선양(禪讓)'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양은 왕이 살아 있는 동안 왕위를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덕이 높아 백성들의 찬양을 한 몸에 받았던 요 임금은 장자인 '단주'를 후계자로 임명하려는 신하들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적인자를 물색한다. 결국 모든 사람이 추천한 효자인 '순'을 후계자로 임명했고, 순은 정치적 경험을 쌓아 요가 숨진 뒤 왕위에 오른다.

순 임금도 자신의 아들 '상군'이 왕의 재물이 아님을 알고 일찍이 '우'를 발탁했다. 순 임금이 죽자 '우'는 3년상을 치른 뒤 왕위를 상군에게 양보했지만 신하들이 우를 따르자 결국 제위에 올랐다.

영원히 놓고 싶지 않은 것이 권력이고 죽어서야 비로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권력일진대, 세습이나 다툼 없이 평화적으로

그것도 마땅한 사람을 찾아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다. 국가와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시스템 공천을 가능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사천과 막천이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사천과 막천을 중단하라며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누가 사천을 하고 누가 막천을 했는지, 이제 판가름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채희종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